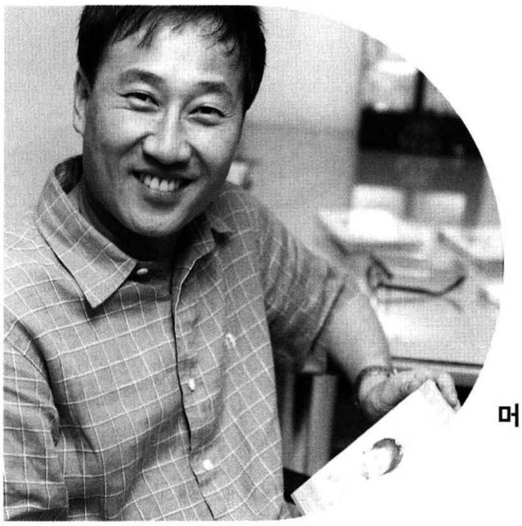

머.리.와..가.슴.을..동.시.에..

맛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을 듣는다? 생각해 보면 책을 먹는다, 책을 입는다, 책을 던진다(!)라는 말에 비해 참 상식적인 이야기다. 이미 우리는 부모님이 읽어주는 동화책을 경험했고, 심야시간에 DJ가 들려주는 시詩를 듣고 문학소년이 되어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소설책을 읽어주는 강독사와 같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청중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던 전문적인 이야기꾼이 적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듣는 책이 보급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체 출판시장의 10퍼센트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미국 오디오출판사협회(APA)에 따르면 '듣는 책'의 4분의 3정도가 차 안에서 이용된다고 합니다. 옛날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현대에는 시간이 없어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책 읽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유미디어드림www.5d5book.com의 첫 번째 오디오북 《TV 동화 행복한 세상》에 북텔러로 나선 가수 유열은 오디오북을 통해서 책을 '듣'는 것이 눈으로 책을 읽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단지 음악과 사람의 목소리만을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연출, 구성작가, 사진작가, 디자이너 등 전문인력을 통한 프로듀싱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유열과 '듣는 책'과의 인연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책을 소개하는 코너에 게스트로 나온 출판평론가와 이야기를 나누다 우연히 오디오북이 화제에 올랐다. 당시에는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엔 동의했지만 진지하게 일을 진행할 마음이나 상황은 아니었다. 다행히 유열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프로 〈음악앨범〉을 통해 오디오북의 가능성을 꾸준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저희 프로의 '동화 읽어주는 남자'나 '풍경이 있는 방' 코너를 통해서 책을 읽어줬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는 저희 프로가 태교에 좋다고 소문이 나기도 했죠."

특히 지난 4월에 여의도 KBS홀에서 연 '동화가 있는 콘서트'는 대성황이었다. 그렇게 오디오북의 대중화에 확신이 생길 무렵 'TV 동화 행복한 세상'을 만났다. 삽화와 함께 내레이션으로 진행되는 동화에는 읽는 책의 가능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TV로 방송된 400여 편의 동화 중에서 읽는 책의 컨셉에 맞는 24편을 고르고 음악과 사운드를 새롭게 작업했다. 꼭 필요하다 싶은 것은 작곡가에게 오디오북에 맞는 새로운 곡을 의뢰하는 등 1년여 동안 준비해서 이번 오디오북을 탄생시켰다. 오디오북은 사운드·음악 프로듀싱이 중요한 항목이다. 문자와 달리 행간을 짚을 수 없으므로 소리를 최적화하는데 많은 신경을 쏟는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분야의 개척자인 셈이죠. '듣는 책'이 지속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제작 노하우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한길사·샘터 등 종이책 출판사들과 협력관계를 활발하게 논의중입니다. 오디오북 시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유열은 '맛있게' 책을 읽어주고 싶다고 말한다. 다름 아닌 귀와 머리와 마음이 동시에 행복해지는 책을 꿈꾸는 것이다.

《독서의 역사》의 저자 알베르토 망구엘은 '책 낭송의 이점은 읽어주는 사람에게는 이야기 창작 능력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창작되는 그 순간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감격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읽는 책 출판사의 출현으로 책을 읽어주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바람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